

한의사 가운 디자인 제안

Proposal for the Design of the Oriental Medical Doctor's Gown

경원전문대학 의상디자인학과
교수 서옥경

Dept. of Fashion Design, Kyungwon College.

Professor : Suh, Ok-Kyung

〔목 차〕

- | | |
|---------------|----------------------|
| I. 서 론 | IV. 한의사 진료가운의 디자인 개발 |
| II. 이론적 배경 | V. 결 론 |
| III. 한방병원의 현황 | 참고문헌 |

<Abstract>

Recently the status of oriental medicine in Korea has been more increased as the alternative medicine which overcome the limitations of western medicine. With the increased status, the development of the oriental medical doctor's gown which is distinguished from that of western medical doctor has been brought up among the oriental medical doctors' group since the middle of 1990.

We carried out the former study to know the development's direction of the present oriental medical doctor's gown by the survey the requisites for the oriental medical doctor's gown which they want(OK Suh, 2002). We aim to propose the developed design of the oriental medical doctor's gown which meet their request and has honored tradition according to the data of the former survey.

As the result of the production designing of the oriental medical doctor's gown considering tradition, practicality, appreciation of the beautiful etc., in our study, we could lead to distribute 800 gowns through the Association of Korean Oriental Medicine supporting by the brand of Amorepacific's Sulhasoo.

주제어(Key Words): 한의사 가운(oriental medical doctor's gown), 차별화된 의사 가운(distinguished doctor's gown), 전통성(tradition)

Corresponding Author: Ok-Kyung Sub, Professor, Department of Fashion Design, Kyungwon College, San 65, Bokjung-dong, Soojong-gu, Songnam-shi, Kyonggi-do, Korea, Tel: 031-750-8721 Fax: 031-750-8729 E-mail: oksuh@kwc.ac.kr

I. 서 론

우리나라 고유 의학인 한의학은 음양오행설을 비롯한 동양철학에 근거에 두고 내적 생명력을 근본적으로 배양하고 건강을 증진하는데 그 특징을 두고 있다. 최근에는 서구의학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체의학으로 그 위상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높아지는 위상과 함께 1990년대 중반부터 한의사 집단 내에서 양의사와 차별화된 진료가운의 개발문제가 제기되었다. 한의사 집단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진료가운의 요건을 알아내어 현행 한의사 가운의 개선방향을 알기위해 실시된 선행연구에서는 개업 한의사 보다는 종합병원소속 한의사들을 중심으로 한방병원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제고할수 있는 전통성이 강화된 진료 가운개발이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서옥경, 2002)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의사 집단의 수요에 부응할수 있는 전통성이 부여된 진료가운의 디자인을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근무복으로서 진료가운의 특징

의사의 진료가운은 의사의 근무복으로 유니폼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유니폼이란 일정한 형식에 의해 정해진 일정 양식의 복장으로 특정집단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을 위해 특별히 고안, 채택되어진 독특한 디자인을 가진 제복을 말한다. 유니폼의 어원은 라틴어의 우누스(unus: 하나의)와 포르마(forma: 형)에서 생긴 합성어로 유니폼은 그 목적하는 바에 따라 특정한 형태와 필요한 장식 및 기능을 구비하고 있는 데에 특색이 있다.(남윤자, 김경인, 이윤정, 1997) 유니폼 중에서도 근무복은 직장과 직업의 표시이며 조직구성원에게는 공통분모를 갖게 해주는 것으로 다른 직장 및 직업과 구별되게 하여 복식의 사회성을 잘 보여주는 품목이다. 즉 복식의 공통성, 집단성, 특수성, 개별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한의사의 진료가운은 일반의사 가운과 달리 한의사들이 환자진료시 입는 옷이므로 한의학의 역사성과 전통성을 반영하며 한방병원내의 규율에 의해 조직적이고 통일성이 있어야 하며 동료의사간에 동료의식과 일체감을 불러 넣어주고 집단에의 귀속감을 가지게 하여야 한다. 동시에 일반인이 양의사와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만 한다.

Horn에 의하면 직업인의 의복은 직업적 신분 상징의 역할이 매우 커서 육체노동자는 작업복 및 유니폼에 의해 쉽게 구별되었고 반면 정장은 화이트칼라와 관련되었으며 이외에 직물, 색상, 의복무늬, 의복의 청결상태 등도 직업특성을 상징하는 단서가 된다고 하였다(Marilyn J. Horn, Louis M. Gurel, Second Skin, 1988). 그러므로 근무복은 개인의 표현인 동시에 소속된 집단의 성격을 표현하며 어느 시대, 어느 집단의 문화적 측면을 강하게 반영한다.

현행 의료계의 유니폼은 소속된 병원별로 일정한 형태와 소재, 색채를 통일하여 디자인된 것으로 환자 진료 시에 착용하도록 지정된 의복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의사와 간호사, 약사 및 제반 의료인들의 복식은 차별화되는데 그중 의사들은 평상복위에 걸쳐 입는 가운이 주류이다. 색상은 청결함을 강조하는 백색에 간단한 의료기구와 필기구를 소지할 수 있는 포켓이 가슴과 허리에 2개가 있으며 팔목에 소속된 병원을 상징하는 마크가 새겨져 있기도 하다.

따라서 한의사의 진료 가운 디자인 시 의사라는 직업적 상징과 의료서비스의 특수성에 따라 아이템의 선정과, 위생과 청결을 위한 색채 및 소재 선정을 고려해야 한다. 근무복 디자인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석명은(1986), 서재호(2001), 정지숙(2001)등이 있으나 한의사진료가운 디자인에 관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2. 근무복의 구성요소

근무복의 특성은 유니폼이 갖는 특성과 같이 착용목적에 따라 상징성, 기능성, 심미성의 세요소가 요구된다.(신인수, 1984, 남윤자 외 2명, 1997) 어떤

직업이든지 기능성, 상징성, 심미성중 어느 한 가지가 빠져도 능률증진, 안정성, 노동의욕의 향상을 얻을 수가 없다.

1) 상징성

유니폼은 개인적인 미보다는 통일된 의식의 집단체를 형성하게 되므로 상징성을 내포하게 된다. 작업의 종류에 따라 통일된 형태, 색채, 옷차림등 그 집단의 사무와 행동을 나타내는 각 유니폼의 상징적인 작용을 중시하는 경향이 커지게 되었다. 의복은 사회적 신분, 직업, 착용의도에 대한 단서를 타인에게 전달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복을 통하여 타인의 성, 연령, 인종, 신체적인 특징 등을 관찰하게 된다. 그러므로 유니폼을 통해서 직업이 구별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황인숙 외 2명, 1998)

2) 기능성

유니폼은 매일같이 장시간 착용하고 활동한다는 점에서 기능성이 중시되고, 착용자의 작업내용, 활동량, 계절적인 문제, 위생적인 측면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활동시 경쾌감을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인간공학적 입장에서 의복과 인체와의 적합성 및 적용성의 문제 즉 생리 위생면과 동작기능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표면에 불필요한 장식, 벨트, 주머니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의복이 터지기 쉬운곳인 바지밑, 주머니 입구, 격드랑이, 소매부리, 소매산 등의 부위는 활동에 의하여 많은 움직임이 있으므로 의복의 여유분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남윤자 외 2명)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의사로서 청결해야 하므로 잣은 세탁을 견딜수 있는 내구성 있는 소재여야 하며 또한 조사대상의 80% 이상이 춘하와 추동이 구분되길 요구하는 만큼 통기성과 보온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 오염이 쉽게 발견될수 있는 옅은 색상의 소재를 선정해야 한다.

3) 심미성

아름답고 신체에 적합한 옷을 착용하였을 때 착용자는 만족감을 갖게 되고 이러한 만족감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의 만족 또는 유쾌

함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특히 병약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 서비스업의 측면에서 한의사의 진료가운은 의사의 만족감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 안정감과 신뢰성을 줄 수 있는 디자인이어야 한다

3. 근무복 디자인시 유의점

근무복은 목적을 나타낼 수 있는 디자인으로 통합적 미관도 생각해야 한다. 즉 착용자의 여러 체형과 성별을 광범위하게 보완해 줄 수 있는 폭넓은 디자인이 되어야 하며 착용자와 관찰자의 미의식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한의사의 진료가운 디자인시 유의할 점을 선, 실루엣, 디테일 및 트리밍, 재질 및 문양, 색채등 디자인 요소(유송옥, 1994)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선은 외양전체를 지배하는 요인으로 복식디자인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다. 진료가운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한의사의 업무복으로 업무의 중요성에 따르는 위엄, 권위를 나타내면서, 쉽게 입고 벗을 수 있도록 기능적이어야 한다. 그에 따라 곡선보다는 직선, 특히 여밈선에 따르는 수직선을 활용하는 것이 미적·기능적이다.

진료가운의 실루엣은 한의사의 진료 동작 등을 분석하여 깨끗하고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능성을 고려한 실루엣이어야 한다. 따라서 특정부위를 압박하거나 확장하는 아우어글라스 실루엣이나 벌크 실루엣보다는 스트레이트 실루엣이 적합하다.

디테일 및 트리밍은 진료가운이 기능적 용도이므로 복잡하지 않고 기능적인 디자인이어야 한다. 특히 환자 진료시 필요한 필기구 및 간단한 의료용구를 소지할 수 있는 포켓디자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침통의 휴대로 인하여 주머니 사이즈가 큰 것이 요구된다. 또한 쉽게 입고 벗을 수 있도록 작은 단추보다는 20-30mm정도의 중간크기 단추가 적합하다.

진료가운의 재질로는 진료가운이 일상복에 비해 오염의 기회가 많으므로 세탁성이 좋아서 흡수와 건조가 잘되는 소재로 구김이 잘생기지 않고 구김

회복성이 좋은 것으로 작업의 여러 동작과 기능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어느 정도 신축성이 있는 소재가 요구된다. 한의의 진료행위에 침을 놓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소매통이 좁고 소매길이가 길지 않아야 한다.

근무복의 색채 선택은 의료서비스의 이미지를 나타내는데 어울리는 색채로서 오염이 쉽게 발견되는 옅은 색이 좋다. 또 여러 사람이 같은 옷을 입어야 하는 근무복의 특징에 적합하도록 무난한 형태로서 단정한 복장이 되도록 해야 하며 평상복 위에 쉽게 걸칠 수 있는 아이템이 적합하다.

즉 한의사의 진료가운 형태는 상징성, 기능성, 심미성을 총체적으로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디자인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4. 한의사의 근무복 디자인의 과정

강희경(강희경, 1994)은 유니폼디자인은 시각적인 특징이 구조적 일치를 이루어야 하므로 디자인발상에서 디자인 결정에 이르는 과정을 하나의 모형으로 제시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이미지 발상단계에서부터 채택된 것을 수정보완하여 이미지 변화 단계를 거쳐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으로 표현하고 색채 변화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단계별로 체계화된 과정을 가진다 하였

다. 제시된 몇가지 스케치중 어느것이 가장 적합한 가를 평가하는데 평가인자로는 착용자의 인체특성, 식별성, 상징성, 조형성, 독창성, 장소 및 계절의 적응성 등을 들 수 있는데 유니폼 디자인의 질적수준이 적절한가에 대한 평가는 피드백을 통해 이루어지며 문제해결 과정으로서의 디자인을 종합해야 한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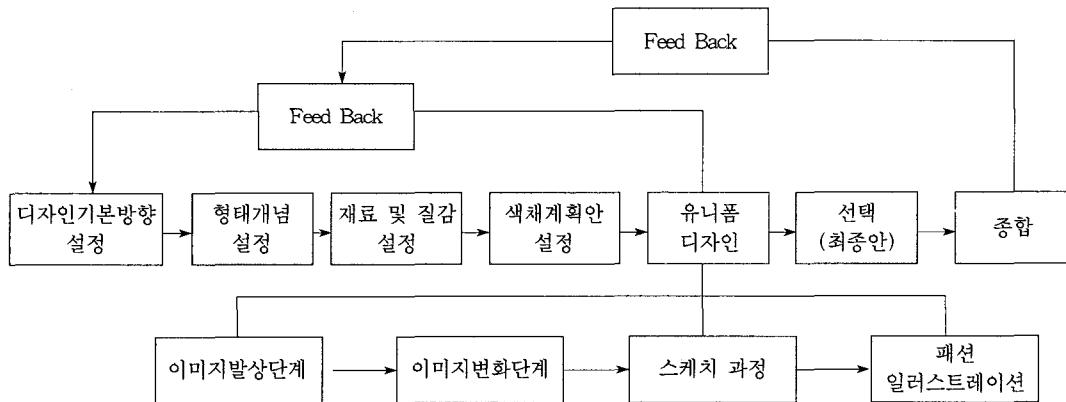
본 연구의 한의사의 진료가운 개발도 이 모형에 따라 전개해 보았다.

III. 한방병원의 현황

선행연구에서 연구대상은 경희대학병원 소속 한의사 150명과 서울시내 개업 한의사 100명을 임의로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1. 한방병원의 이미지와 병원가운에 대한 평가
2. 현재 착용하고 있는 병원가운에 대한 평가
3. 현행가운의 개선에 대한 평가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다.

1항목에서는 한방병원의 이미지 강화부분에 대해 전문성·전통성·위생성 등의 순으로 평가되었다. 2항목에서는 현행가운의 디자인 부분에서 낮은 평가가 나타났다. 3항목에서는 현행가운의 개선시 강조될 항목에 대하여 전통성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고



<표 1> 유니폼 디자인 과정

〈표 2〉 서울 경기지역한방병원 현황

지 역	병원명		
서 울	구로한방병원(10)	경원대부속한방병원(23)	꽃마을한방병원(30)
	꽃마을한방병원(30)	동서한방병원(39)	혜당한방병원(15)
	동국대부속한방병원(27)	영등포한방병원(3)	동국한방병원(27)
	자생한방병원(23)	강남의림한방병원(3)	우리한방병원(3)
	강남경희한방병원(22)	서울적십자한방병원	광동한방병원(11)
	경희대부속한방병원(33)	동인당한방병원(18)	우신향한방병원(3)
	보생한방병원(8)	장수한방병원(1)	영생한방병원(5)
	국립의료원한방병원(10)	기린한방병원(4)	대한한방병원(20)
	만당한방병원(1)	성바오로한방병원(3)	고려한방병원(3)
경 기	동수원한방병원(20)	신애한방병원(1)	중화한방병원(5)
	분당차한방병원(300)	하나한방병원(12)	남천한방병원(1)
	명지한방병원(28)	자인한방병원(5)	동국대부속한분당한방병원(32)
	인덕원한방병원(2)	백상한방병원(1)	의정부한방병원(7)

()안의 수는 한의사의 수를 나타냄.

실용성, 기능성, 심미성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운 착용 현황에 관한 조사결과 양방병원과 차별화된 디자인의 가운을 착용하는 곳은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한의원에 따라서는 양의의 흰가운이 아닌 다른 형태와 색상의 가운을 착용한 경우도 있었지만 그 가운 디자인이 통일된 것은 아니었고, 개개인 한의사에 따라 다른 디자인의 가운을 착용하고 있기도 하였다.

서울 경기지역에는 서울28개, 경기15개의 한방병원이 있으며 한방병원의 현황은 〈표 2〉와 같다.

선시 되어야 할 항목은 전통적 이미지의 부각과 계절에 따른 가운의 분류, 포켓기능 등의 강화를 통한 기능성과 실용성의 강화 등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토대로 한의사 가운의 6종류를 디자인 제작하였다. 디자인 의도는 전통적인 디자인을 살리기 위해 한복의 선을 응용하였으며 실용성과 기능성의 측면에서 면과 면혼방등의 관리가 용이한 소재를 사용하였고, 한방의료기구의 편리한 적재로 진료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포켓기능도 고려하여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또 깃과 무부분, 베스트라인등의 배색을 사용하여 심미적인 측면에도 역점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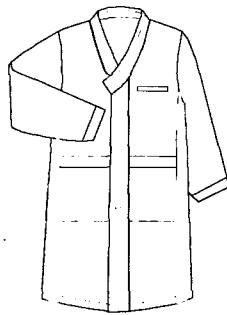
IV. 한의사 가운의 디자인 개발

1990년대 중반 한의사 집단내에서 한의사의 진료 가운이 양의사와 차별화된 한국적인 디자인의 가운으로 교체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 이 점에 착안하여 한의사와 양의사의 진료가운의 분리가 더 합리적일수 있다는 전제 아래 선행연구(서옥경, 2002)를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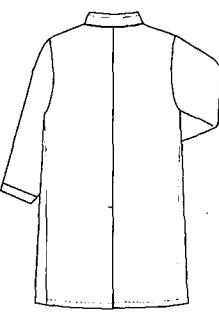
선행연구 결과 한의사 진료가운 개선시 가장 우

1. 디자인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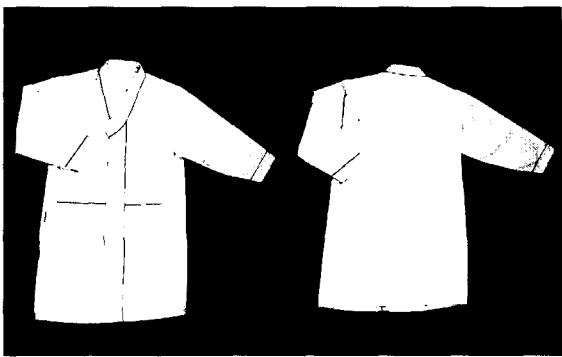
디자인 I은 우리나라 전통 목판깃선과 긴앞섶, 옆무부분등의 요소를 살려 디자인 하였다. 소매 배래선은 침을 놓아야 하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간편하게 줄였으며, 주머니도 청진기와 침통의 휴대등의 이유로 가능한한 넓은 폭으로 제작하였다. 주머니 윗부분에 절개선을 넣어 현대적이며 활동적인 느낌이 나도록 디자인함으로서 전체적으로 한국적인 느낌과



<그림 1>



<그림 1-1>



현대적인 미가 어우러지도록 디자인하였다. 목선의 더러워짐 방지와 심미성을 살려 깃에 배색의 동정을 달아보았다. 소재는 100%면인 중간두께의 흰색 옥스퍼드지로 제작하였으며 오염방지를 이유로 짙은 회색의 도정배색을 넣었다. <그림 1>은 가운의 도식화이고 <그림 1-1>은 디자인에 따라 제작하였다.

2. 디자인 II

깃과 동정이 없는 V자형 네크라인의 형태로 편안함을 강조하였다. 여밈은 매듭단추를 사용하여 트리밍하였고 실용성을 강조하였다. 전체적으로는 심플한 라인과 디테일을 사용하고 단조로움의 느낌을 피하기 위해 절개선과 스티치를 사용하였다.

소재는 흰색 진료가운의 단조로움을 벗어나 연하늘색의 면TC를 사용하여 세탁이 용이하도록 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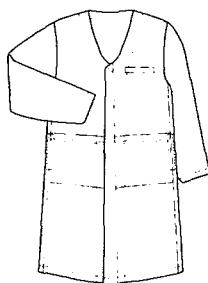
제작하였다.

<그림 2>는 가운의 도식화이고 <그림 2-1>은 디자인에 따라 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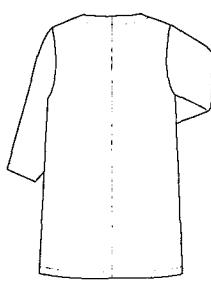
3. 디자인 III

디자인 III은 전통적인 관복의 단령깃을 이용하였으며 뒷면 무부분도 관복의 형태를 따라 디자인하여 뒷무 아래부분은 터져있고 활동하기에 편리함을 주었다. 활동의 편리성과 편안함을 강조하였으며 여밈 또한 매듭고리를 이용하여 고전미를 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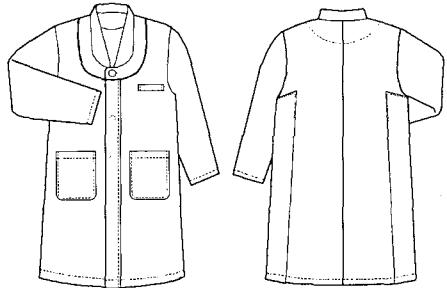
소재는 흰색 면혼방천으로 제작하였으며 단령의 등근라인에 청색파이핑 처리를 하여 단조로움을 피해 디자인 하였다. <그림 3>은 가운의 도식화이고 <그림 3-1>은 디자인에 따라 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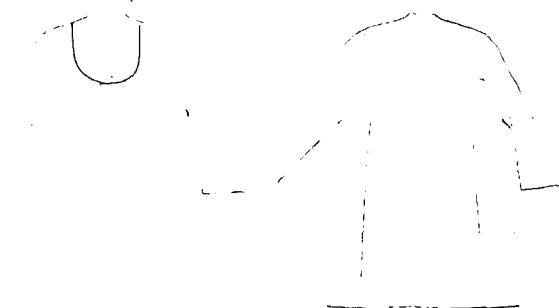
<그림 2>



<그림 2-1>



<그림 3>



<그림 3-1>

4. 디자인 IV

디자인 IV는 전통 한복의 깃선을 이용하였고 소매통은 줄였으나 진동선은 일반 가운에 비하여 넉넉하게 여유를 주어서 활동성을 더하였다. 주머니를 달아 진료시 편리하게 하였고 배색없는 단조로운 디자인으로 한의사 가운의 깃선에 전통미를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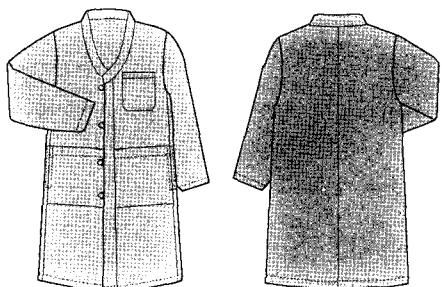
소재는 면100% 옥스퍼드지로 제작하였으며 전통적인 감각을 더하기 위하여 황토색으로 후염하였다. 후염이란 옷을 제작한 후에 염색하는 것으로 구김을 방지하는데 뚜렷한 효과가 있기에 가운 제작시에는 후염을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나 할 수 있다. <그림 4>는 가운의 도식화이고 <그림 4-1>은 디자인에 따라 제작하였다.

5. 디자인 V

디자인 V는 남자의 긴 저고리 위에 조끼를 덧입는 감각으로 디자인 하였으며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조끼의 배색을 해 보았다. 동정의 배색도 조끼와 같은 색으로 처리하였고 단추는 안으로 달게 하여 겉으로 나타나지 않게 디자인 하였다. 소재는 면TC로 제작하였으며 가운 전체색은 연한 베이지색으로, 조끼부분과 동정은 진한 베이지색으로 제작해 보았다. <그림 5>는 가운의 도식화이고 <그림 5-1>은 디자인에 따라 제작하였다.

6. 디자인 VI

선행연구에 있어서 춘하복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소매를 짧게 하여 디자인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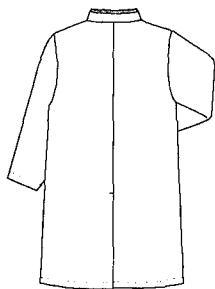
<그림 4>



<그림 4-1>



<그림 5>



<그림 5-1>



<그림 6>



<그림 6-1>

회장을 응용해 무분분에 배색을 하였고 주머니를 달아 변화를 주었다. 옆선의 배색은 전체적으로 넉넉한 품에 비해 슬림한 효과를 주어 날씬해 보이면서도 활동하기에 편안한 느낌을 주도록 실용성과 심미성을 동시에 고려하였다.

소재는 면TC이며 색상은 흰색과 보라색의 교직이며(아주작은 점무늬) 옆무부분은 보라단색으로 배색하여 제작하였다. <그림 6>은 가운의 도식화이고 <그림 6-1>은 디자인에 따라 제작하였다.

이상으로 6가지 디자인의 가운 sample을 제작하여 보았다. 가운의 호응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한의사협회를 방문하여 제시하였고 전국 한의사협회 정기 이사회에서 의사 3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디자인 I에 가장 높은 호응도(80%정도)를 나타냈다. 현실적인 한의사 진료가운 보급의 일환으로 (주)태평양 설화수 브랜드의 후원을 받아 디자인 I 가운 800벌을

한의사협회에 배부할 수 있게 되었다. 가운 800벌의 수여식이 2003년 5월 30일 정기 이사회에서 거행되었고, 대한한의사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일을 시작으로 양의사와 차별되는 한의사 진료 가운이 보급,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V. 결 론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나타난 제안점에 중점을 두어 전통성, 실용성, 심미성, 계절 요소를 고려하여 6종류의 한의사 가운 디자인 개발을 하였고 실물 제작·제시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설문에 참여한 한의사들이 요구한 개선항목으로 가장 높았던 것은 전통성이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한의학의 역사를 고려했을 때 한의사 가운에는 양의사와 구

별되는 전통성을 상징할만한 디자인 요소가 필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현대사회의 요구에 맞는 한의사 가운의 디자인을 제시함으로써 양방의사와의 가운의 구별과 우리옷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목적이 있다. 첫째, 한의사 집단내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선호 디자인의 유형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둘째, 한의사들을 중심으로 한방병원의 차별화 된 이미지를 제고 할 수 있는 전통성이 강화된 가운을 디자인 개발, 제작하였다.

1. 한의사 집단의 디자인의 선호유형과 문제점

1) 소재는 일상복에 비해 오염의 기회가 많으므로 세탁성이 좋은 것으로 그리고 구김회복성이 좋은 것으로 작업의 여러 동작과 기능을 보완해 줄수 있는 신축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색상의 선호도를 살펴보면 의료서비스의 이미지를 나타내는데 어울리는 색채로서 오염이 쉽게 발견되는 옅은 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형태별로는 여러 사람이 같은 옷을 입어야 하므로 무난한 형태의 단정한 옷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디자인에 있어서는 심미성과 더불어 전통성이 강조되는 디자인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이상의 조사 결과를 통해 나타난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현대인의 미의식과 전통복식의 특성을 조화시킨 6가지의 디자인형태의 가운을 제작하여 한의사협회에 제시하였고 호응도가 가장 높은 디자인 I 가운을 (주)태평양 설화수 브랜드의 후원으로 800벌을 한의사협회에 배부할 수 있게 되었다.

선행연구 결과 가장 우선되어야 할 항목이 전통적 이미지 부각 이었으므로 이를 가장 우선으로 하였다.

디자인의 근거는 우리나라 전통 한복의 선과 형태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특별히 디자인의 point를 전통 목판깃을 활용하였으며 옆선에 두루마기의 무를 넣고 뒤티임을 주어 활동에 편리하게 제작하였다. 전통한복에 현대적인 해석을 덧붙여 편리성과 활동성, 심미성과 전통성을 고려하여, 양방의사와의 가운에 차별화를 두었다. 소재는 조사결과 활동성과 위생성을 위해 세탁이 좋은 면100%의 소재를 선정

하였고 설문조사결과 흰색을 선호하였으므로 흰색의 가운에 진회색 라인을 깃부분과 소매 끝동 분위기로 대여 현대적인 느낌이 나게 디자인하였다.

그 결과 대한한의사협회에서 대표자격으로 외국에 파견되는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착용될 전망이다.

본 연구에서 한의사 대부분이 양방의사와의 가운 차별화에 긍정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양방 의사가운의 차별화에 맞는 한의사가운에 많은 보급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김금주(1987). 우리 나라 유니폼 패턴 디자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희경(1994). 유니폼 디자인 이론 설계 및 그 적용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논문집*, 23, 584
- 남윤자, 김경인, 이윤정(1997). 유니폼 실태조사와 디자인 개선을 위한 연구(1). *한국의류학회지*, 21(2), 456.
- 서옥경(2002). 우리나라 현행 한의사 진료가운에 대한 조사연구. *服飾*, 52, 3.
- 서재호(2001). 호텔 유니폼이 종사원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유니폼의 색상, 지각자 변수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석명은(1986). 소아병동의 유니폼에 관한 연구-디자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학위논문*.
- 이경희(1987). 간호원복 디자인에 개발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지숙(2001). 간호사의 유니폼에 대한 만족도와 전문적 자기이미지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한소연(1998). 병원 색채 계획의 사례 연구: 다나크리닉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인숙, 이경희, 배현숙(1998). 은행원들의 유니폼 선호도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논문집*, 19(2), 195
- Marilyn J. Horn, Louis M. Gurel, 이화연 역(1988). *Second Skin*, 서울: 까치, 224.

(2003년 5월 14일 접수, 2003년 10월 14일 채택)